

광주 군공항 이전 ‘진전’... 전남 메가이벤트 ‘성공’

2023년 광주·전남 시도정 결산

市, 복합쇼핑몰 건립 가시화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청신호
道, 정원박람회·전국체전 개최
지역기업 해외 진출 적극 지원

2023년 계묘년 한 해가 저무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8기 2년차인 올
해 주요 현안 사업에 크고 작은 성과를 거
뒀다.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유치 사업 본격
화, 복지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성공 안착, 군공항 이전 기틀 마련 등 ‘내
일이 빛나는 도시 광주’를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고, 전남도 역시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와 전국체육대회 등 메가 이벤트
성공 개최, 대규모 글로벌 투자 유치, 우
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미
래 100년을 이끌 성장동력 창출을 구제
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시 ‘통합돌봄’ 성공 안착

광주시는 올해 지역 최대 현안이자 최
대 난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토대
를 마련했다. 지난 4월 국가지원을 골자
로 한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
다.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무안군의 강
한 반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지만 지난 17일 강기정 시장과 김
영록 지사가 양자 회동을 통해 ‘KTX 무
안공항역 개통 시기에 맞춰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

‘꿀잼 도시’를 위한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도 윤곽을 드러냈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신세계프라퍼티와 어등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조성을 위한 본계약을 체
결했고, 앞서 ‘더현대 광주’가 들어설 예
정인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협상도 마무리했다.

민선 8기 광주시의 대표 복지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도 성공적으로 안착
했다. 광주시는 지난 9일 ‘통합돌봄’이라
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선보였다는 평가
와 함께 제6회 중국 광저우 국제도시 혁
신상을 수상했다. 강 시장은 세계시장포
럼 기조연설자로 나서 통합돌봄 정책
주제로 민주도시 광주의 포용성을 알리
고, 도시안전망과 공동체 구축 효과를 강
조했다.

영호남 숙원사업인 광주와 대구 간 달
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도 지난 21
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법안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임시
회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전남도 ‘글로벌 도시’ 성장

전남도는 올 한 해 ‘대도약 전남 행복
시대’ 실현을 위한 튼튼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가장 큰 성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와 전국체육대회 등 메가 이벤트의 성공

개최가 꼽힌다. 지난 4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린 순천만정원박람회에는
98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고 333억원
의 수익금을 달성하는 등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다. 또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 및 제43회 전국장애인
체전의 성공 개최 역시 큰 성과다. 지
난 10월과 11월,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체전은 총 4만명의
역대 최다 선수단이 참가해 국민대화합
및 감동체전을 펼쳤다. 전남도는 메가 이
벤트의 성공개최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의 성장 역량을 국내·외에 보여줬다.

해외순방을 통한 실리외교 역시 주목
할 만하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 유럽과 중동·아시
아 등을 방문,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 판
로를 열어주고, 해외기업의 전남 투자를
유지했다. 전남도는 올해 블루수소, 해상
풍력 등 해외 에너지분야 기업들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움시티’ 건설에 전남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 또 글로벌 이벤
트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
를 보였다. 지난달 김 지사는 아랍에미리
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
참가해 차기 COP33 회의를 여수시에 유
치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김 지사는 33
차 총회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노
력을 전세계에 알리고, 정부 차원의 지지
를 호소했다.

이밖에도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
제돼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대를 중심으
로 1조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
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차전자·수소
·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도 14조원 규
모의 대규모 투자유치가 이뤄지는 등 올
한 해 ‘세계로 도약하는 전남 행복 시대’
를 열겠다는 민선 8기 도정 핵심 정책 추
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
다.▶관련기사 3면 노병하·최활지 기자



성탄절 거리축제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 신자들과 시민 등이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 24일 일곡지구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리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옥현진 대주교 성탄메시지
“사랑하는 이 떠나보낸
사람들 고통 함께하길”



천주교 광주대교
구 교구장 옥현진 대
주교는 “기쁜 성탄을
맞아 하느님 축복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옥 대주교는 천주교광주대교구청
에서 발표한 성탄 메시지에서 “인생
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라도 가장 작
은 이가 될 수 있다”며 “우리 중에 죄
를 짓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이를 떠
나보낸 사람들은, 고통이라는 감옥
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혼자
서 외롭게 나그네 살이를 하기도 한
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의 유
가족들이 그와 같은 것이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두려
움에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서 머물 곳과
먹을 것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견뎌
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
하시는 작은 이들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변 작은 이들의 힘겨운
상황에 귀 기울이고 고통에 공감할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는 손을 보태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 대주교는 “하느님께서 당신 탄
생의 장소로 마구간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작은 이웃들을 향
해 열어두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마
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작은 이웃을 환대하며 성탄
기쁨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송민섭 기자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에너지를 보냅니다

모두의 소중한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 송변전시설의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움직이는 힘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